



즉시 배포용: 2022년 10월 14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유방암 생존자에 대한 회복 기간 지원 법안에 서명**

**법안(A.8537/S.7881)은 절제술을 받은 후 재건 수술을 선택한 유방암 생존자가 적절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

**주지사는 10월 유방암 인식의 달의 맞아 법안에 서명**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회복 기간 중 유방암 생존자 지원을 위한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법안(A.8537/S.7881)은 완전 절제 또는 일부 절제술을 받은 후 재건 수술을 선택한 유방암 생존자들이 적절한 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주지사는 10월 유방암 인식의 달(Breast Cancer Awareness Month)을 맞아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방암 생존자들이 존엄성과 존경심을 가지고 대우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절제술 후 재건을 결정한 여성들은 해당 절차에 대한 보험 혜택을 받아야 하고 이러한 선택지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얻어야 합니다. 저는 유방암 인식의 달을 맞아 뉴욕의 모든 여성께 올해 유방조영술을 받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법안(A.8537/S.7881)은 완전 절제 또는 일부 절제술을 받은 후 재건 수술을 선택한 유방암 생존자들이 수술에 대한 적절한 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새로운 법에 따라 유방 재건 및 흉벽 재건 모두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여성들은 절제술을 받은 후 자신의 신체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법은 또한 의사들이 환자와 흉벽 재건에 대한 논의를 통해 환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미국에서 여성 여덟 명 중 약 한 명이 일생 동안 한 번 유방암 진단을 받고, 다수가 암 치료의 일환으로 완전 또는 일부 절제술을 받습니다. 완전 또는 일부 절제술을 받은 후, 일부 여성은 유방 재건을 결정하고, 다른 여성들은 흉벽 재건을 선택합니다. 현행 법에 따르면 유방 재건은 보험 보장 대상이지만 흉벽 재건은 다수의 보험사자 "미용" 목적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보장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Toby Ann Stavisky 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성이 자신이 신체에 대한 자율적인 결정을 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유방암 치료를 위해 절제술을

받은 여성은 수술 후 선택지에 대해서도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흉벽 재건을 원한다면, 유방 재건과 마찬가지로 보험 보장을 받아야 합니다. 법안을 지지해주신 **Pheffer-Amato** 하원의원과 법안에 서명해주신 **Hochul**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Stacey Pheffer-Amato**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뉴욕은 전국에서 최초로 여성들에게 보험 보장을 제공하는 주가 되어 역사를 만듭니다. 이번 법안은 절제술을 받은 여성들이 신체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합니다. 법에 서명해주신 **Hochul** 주지사와 더불어, 상원에서 법안을 지지해주신 **Toby Ann Stavisky** 상원의원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뉴욕주는 유방암 환우들이 단순히 생명을 보전하는 것이 아니라 충실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어 큰 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http://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mailto: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